

이탈리아 섬유시장 - 중국 섬유제품이 급증,

중국인 봉제공장도 생겨

그 동안 일본의 섬유업계는 중국을 위시한 개도국의 섬유제품에 의하여 시장을 점차 빼앗기자 쇠퇴하는 기업이 속출하게 되었으므로, 일본 섬유공업이 재생할 수 있는 모델로서 이탈리아의 섬유공업을 본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서 설득력이 있었다. 그 당시의 이탈리아는 오랜 역사에서 우러나오는 예술적인 창조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현대의 상품 기획력은 지금도 훌륭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탈리아 전체가 미술작품으로 가득 차 있어 상품의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상품디자인 능력은 쉽사리 시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탈리아 기업은, 중국의 상품판매력이나 생산능력에 밀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 본보기의 하나로 밀라노 대성당 앞 현관의 계단에는 각종 어린이용 완구를 파는 행상이 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는 이탈리아 노인들이 이 자리에서 완구를 팔고 있었는데, 그 당시로부터 10년 후인 1990년대 초에는 아프리카 서해안 출신인 흑인 청년들이 완구행상의 주역으로 바뀌고 있었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는 어린 아이를 등에 업은 중국인 아주머니가 완구행상의 주인공이 되고 있으며, 이들 중국인들은 어느 시기가 되면, 이보다 한 수 위의 직업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탈리아의 보로냐지방에 있는 염색공장에서도 10년 전에는 흑인 노동자가 곧잘 눈에 띄었는데, 최근에는 중국인 노동자가 적지 않게 눈에 띈다.

그런데 중국인 노동자가 이탈리아의 젊은이들이 흔히 기피하는 직업에서 일하는 인원이 많아질 정도에서 멈추었으면 이탈리아 경제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에서와 같이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젊은 일꾼이 줄어들어, 이탈리아 사회에서 기피하는 노동을 아프리카의 흑인이나 중국인이 해결해 주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밀라노주재 통신원의 보고에 의하면, 이탈리아의 섬유생산자들은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중국제 저가 섬유제품이 이탈리아 시장에 급증하고 있어, 압박을 받고 있다. 이탈리아의 코모에 있는 라티사, 만테로사들도 중국의 견제품 수출공세로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탈리아의 “비에라” 섬유산지의 기업들도, 이제까지 세계에서 경쟁할 만한 맞수가 없을 정도로 여유 있게 사업을 해왔는데, 그러한 환경은 이미 사라져버린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전해왔다.

그 뿐 아니라 이탈리아 각 지방의 고급의류와 더불어 가방이나 구두 등 고급양장품을 판매하는 부티크(boutique)들도 요즘은 중국제로 짐작되는 상품이 많이 진열되어 있으며, 이탈리아 각 도시의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교외마켓에서도 중국인 판매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면스커트가 일본 돈으로 환산하여 400엔 정도이고 원피스가 700엔 정도로 아주 싸며, 그 동안 품질도 많이 좋아져서 잘 팔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중국상인들은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 중국인이 돈을 잘 벌면 누군가가 울게 된다.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상점이나 부티크 등이 조금씩 연이어 문을 닫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이렇게 문 닫는 상점이 갈수록 많아질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다.

이 리포트는, 최근 중국인이 이탈리아 섬유산업내에서 새로운 분야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는 눈여겨 볼만한 동향도 전하고 있다.

이탈리아 서남부의 시칠리아(Sicilia)에는 “차이나타운”과 같은 구역이 생겼는데, 그 구역에는 중국인이 경영하는 봉제업이나 의류도매상이 많이 생겨, 앞으로 이탈리아 섬유산업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음직하다고 느껴진다.

최근 일본에서는 글로벌화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러 외국에서 연달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화 전략이 매우 중요해진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